주한 美대사관 최은경 전문위원이 말하는 '영어교육, 잘못된 고정관념'

'원어민에 배우면 잘 한다'는 건 욕심일 뿐

지난 3일 오전 광주 무등도서관 내 아메리칸 코너. 젊은 엄마 20여명이 메모지에 뭔가를 열심히 적으며 주한미국대사관 최은경(30) 전문위원의 설명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주한미국대사관 지역총괄담당관실이 마련한 '광주 아메리칸 코너 영화축제'의 오픈 프로그램 일환으로 '어린이 영어 교육'이 열린 것.

"제 발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사전이 좋나요? 종이사전이 좋나요?", "우리 아이 유치원에서는 한국인이 영어를 가르쳐요. 외국인이 있는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교육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던 학부모들은 강의가 끝나자 마자, 평소 영어 교육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쏟아냈다.

최 위원은 "아이가 네이티브 스피커(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기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 가능하지도 않다"며 "영어를 접했을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부담을 주어선 안되기 때문에 놀이 또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으로부터 영어교육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들어본다.

◇무조건 외국인 선생님에게 배워야 한다?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말하고 생활하다 보면 영어에 대한 흥미가 올라가고, 실력이 쑥쑥 오를 뿐 아니라 외국인처럼 영어를 말하게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아이가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하길 바란다면 외국으로 보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최 위원은 CNN의 예를 든다. 전 세계로 나가는 뉴스 채널 CNN의 경우 앵커들의 발음이 각자의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으로 방영되는 CNN 방송의 중국인 앵커는 중국식 영어 발음을, 프랑스인 CNN 앵커는 프랑스식 영어 발음을 구사한다. 세계 공용어로 취급되고 있는 영어가, 물론 기준은 되겠지만 굳이 미국이나 영국 발음을 표준으로 삼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의 경우 무작정 외국인을 붙이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 가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100가지의 영어를 동원했는데, 그 100가지도 다 모르는 단어라면 아이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고 말 것이다. 의미 파악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장 만을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반감된다.

◇영어책은 친절한 게 좋다?

동화책이나 유인물 등 영어 텍스트를 보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보통 사전을 찾아 한글로 '친절하게 ' 뜻을 적어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만약 아이가 그 문장을 다시 읽는다면 영어를 쏙 빼고 한글만 읽게 되기 때문이다. 나중엔 문장 중 그 단어만 한글로 떠오르게 된다.

절대로 적지 말고 사전의 뜻만을 인지시키는 것이 좋다. 또 그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다시 사전을 찾는다. 종이 사전에 한 단어를 몇 번이나 찾았는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해두고 같은 단어를 10번 정도 찾았다면 반복 암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읽기 쓰기와 달리, 말하기, 듣기에서는 한글 혼용이 유용하다. 집에서 영어를 생활화하기 위해 아이에게 "웨이크 업!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영어 동화책의 'Wake up' 밑에 '일어나'라고 쓰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아이는 엄마의 "웨이크 업! 일어나!"가 익숙해질 무렵 "웨이크 업!"만 해도 일어나라는 말인 줄 알게 된다.

◇동화책·비디오 등 영어교재는 많을 수록 좋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동화책에는 글보다 그림이 더 많다. 글을 엄마가 한번 읽어주고 아이가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 동화책을 마스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의 동화책이라 할지라도 수십가지의 활용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책 속의 다양한 캐릭터나 색깔 등을 아이와 함께 찾아보며 단어를 익히는 등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이 좋다.

알파벳을 종이에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 "'B'자가 어디 있지?" "싱크대" "그럼 카드를 가져와서 B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만들어볼까?" "BANANA(바나나)! BACK(등)!" 식으로 풀어가는 놀이법이 가능하다.

중·고등학생들이 있다면 현관에 메일 박스를 만들어 두고 영어로 간단한 쪽지를 주고 받으며 영어 문장 쓰기를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창할 것도 없이 등교길 아이에게 "You look so cute, today(너 오늘 참 귀엽다)"라는 쪽지를 건네주고, 하교길에 아이로부터 "Thanks, Mom(고마워요 엄마)"이라는 쪽지를 받았다면 성공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모르는 단어 뜻 적어두면 도움 안돼
반복해서 사전 찾는 습관 길러 주길

동화책·비디오 등 많아도 안좋아
책속 캐릭터 등 찾으며 단어 익혀야

최은경 주한미국대사관 전문위원이 지난 3일 광주 무등도서관 내 아메리칸 코너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어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美도서관협회(www.ala.org)가 추천하는 유아용 동화책

▲베스트 베스트 프렌드(Best Best Friends)

친한 두 친구가 심하게 싸웠다. 이들은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껴안지도, 장난감을 나눠가지며 놀지도 않게 된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은 이들의 사랑 싸움(?)을 보며 스스로의 모습이라 생각할 것이다.

▲오리와 거위(Duck & Goose)

오리와 거위가 크고 둥근 알을 함께 발견하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 주장한다. 이들이 옥신각신하며 알의 신비한 미래를 상상하는 동안 자연스레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흑과 백, 낮과 밤(Black? White! Day? Night! A Book of Opposites)

아이들에게 반대의 개념을 익혀주는 책이다.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의 반대 경우를 풍부한 삽화를 통해 알아가면서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된다.